

# “도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신뢰 하락”

### 도의회 문광위, 어제 오라단지 자본검증 문제 추궁 의원들 “사업자 예치금 거부, 또 다른 갈등 소지로” 제주도 측 “충분한 자료 제출 또는 설명자료 필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에 투자금으로 밝힌 자기 자본 중 10%를 사전 예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송아 의원은 “(JCC측은)현금 예치 요구는 사업 추진절차에 없는 상황이고, 제주에 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례도 없고 관련 법규 규정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어쨌든 예치금 거부 선례가

만들어졌는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할지냐”며 제주도의 방침을 물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더 강화된 형태”라며 향후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개발사업심의위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엔 활용했다가 다른 대규모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로 충분하거나. 정확한 방침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게 투자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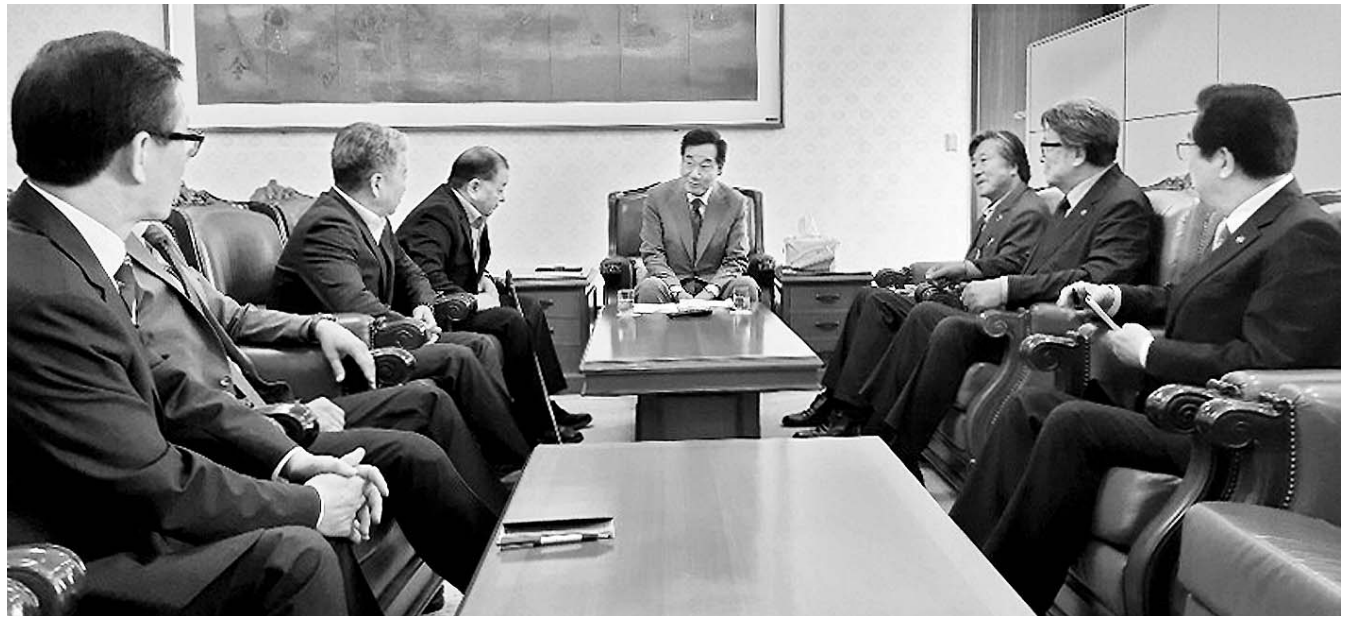
이정용 의원은 카지노 관련 사업과 접목시키며 “뭔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따라 다르다”

며 행정이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명하게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JCC와 실질적 협의가 안되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계속된다”며 “제주도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양 국장은 이송아 의원이 “(JCC가 예치금 거부로)일부에서 오라관광단지 유치 전망이 어둡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충분한 자료 제출 내지는 납득할만한 설명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JCC측이 자본 예치를 거부한 가운데 자금 예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투자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한 상태다. 오은지기자



3일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연 고문, 양조훈 4·3재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4·3특별법 국회 통과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4·3평화재단 제공

## 이 총리 ‘4·3특별법 개정’ 지원 약속 “문 대통령 임기 내 진전되도록 최선”

### 유족회 등과 면담서 밝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4·3특별법 국회 통과 노력에 동참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제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연 고문, 양조훈 4·3재단 이사장과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의미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 이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4·3은 여느 과거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전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 작업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담 등 예측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의미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문 회장과 장정연 고문은 “이

제 생존희생자나 유족들도 남은 생애가 그리 많지 않다”며 “한땀한 삶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산 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들은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웅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차례로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소진기자

## 카지노 확장·이전 영향평가기준 나왔다

### 도의회 문광위 1차 회의서 카지노 이전 등 심의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공개

### 문중태 의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부적절” 지적 제기

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지난 1일 납품받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연구용역은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주 카지노 산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500점(경제적 300점, 사회문화환경적 200

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수렴(300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주변지역 및 제주도 기여 방안(200점),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300점)다.

또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제주카지노감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와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관광 부문 교수,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등 10인 이내 구성이 제시됐다.

이같은 용역 결과를 두고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카지노 대화회의 빛장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일동)은 “평가지표를 보면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용역”이라며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배점)은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중태 의원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대부분 전문가고, 카지노업 종사자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다. 카지노 신규, 확장 이전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용역연구진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절대보전지 없는 제2공항 계획부지 유력”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1안 유력... 11일 주민설명회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가장 유력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반대 측이 이번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날 2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향평가에 따르면 육안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결과 문화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 분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활주로 위치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경제성 부분에 대해 대안별로 비교·검토한 결과 1안이 가장 유력했다. 절대보전지역을 저촉하지 않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분포가 적고, 항공기소음 영향 예상지역 노출 면적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의견제출기간은 2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초안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한다. 이소진기자

## “대기업도 렌터카 줄여야”

### 도의회, 자율감차 동참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감차 정책에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도위는 3일 개최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박원철 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도내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가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기업인 롯데·SK·AJ·한진·해피네트웍스 등 5개 대형 렌터카사는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은지기자

## 2019 일하는 청년 제주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제공하여 일 경험 기회 및 직무역량 강화로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하는 청년 제주뉴딜일자리 사업의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7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약정개시일 ~ 2020. 07. 31.
  - 지원인원: 25명
  - 채용연도: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의 30% 범위 최대 5명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명으로 함)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사회 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단, 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외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일 경험 제공 지원: 약정개시일 ~ 20. 07. 31.
    - 지원금액: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 제시간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보장이 생 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연2,250만원 범위 내) 지원 \* 월 보수(1일 8시간 기준): 1,875천원 \* 기업 자부담: 기본급 1,875천원의 10%,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 등
-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19. 06. 26 ~ 07. 08 (09:00 ~ 18:00)
    - \* 신청시간: 참여기업 모집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접수 및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창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성로 473, B1층 사무처 \* www.jba.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Tel: 064-806-3353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기업 및 단체 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 사업 신청서식 및 정보활용동의서: 별도 첨부파일 참조
    -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확인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지방세·국세납 증명서, 기업 및 단체 정관 사본
-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불합격 자료에 의거, 선정방법을 통한 선발 및 지원
-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 신청방법: 직접방문(최초 신청시) 2회 이후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창출센터
  - 지원금 지급: 신청 마감 후 7일 내 지급
-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근로계약 체결 등의 준수
    -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사업 참여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위기재피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 지원액정 체결 후 2019.07.31. (수)까지 신규인력 참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약정액정 취소될 수 있음
- 6. 기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업신청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참여 기업별 채용인원은 신청기간중 응모기업 및 채용희망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농공단지내식당 사용자 (재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제주특별자치도 금융농공단지내 식당 사용자 입찰
  - 나. 재산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융농공길41 (금농리407-16)
- 2. 입찰방법**
  -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면접을 통하여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
- 3. 입찰참가자격**
  - 만20세 이상인 자로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일반음식점 운영경력이 있는 자
- 4. 입찰참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등 모든 접수는 직접 제출 또는 팩스 (F:064-772-5183) 우편 접수 가능
-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2층) T.064-772-5173로 문의

금융농공단지협의회 회장

## 그랜드보청기

어르신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훈저 전화 주셔서!

###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